광산업육성위원회 2002년도 1차회의 개최

한국 광산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광산업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갈 종합사령탑인 광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국회산업자원위원장) 2002년도 제1차 회의가 지난 3월 7일 산업자원부 김칠두 차관보를 비롯한 4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위원 위촉과 광산업 1~2차년도 추진시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채택되었고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사업 보고,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업무보고, 광산업 2단계 육성 용역 추진 방향 보고가 있었다.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광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 등 추진 체제가 갖추어 졌으며 광관련 기업도 120여개에 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천3백억원을 투자,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광산업체의 집적화, 그리고 국제협력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산업 2단계육성 전략을 수립중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광산업육성 1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2단계에서는 선도기업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중점육성 분야의 선정과 집중육성 전략, 그리고 범정부적인 광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소위원회는 지난 연말 실시한 평가결과 보고에서 2002년은 세계 광산업 시장이 상승동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광산업 육성이라는 사업전체의 큰 목표달성을 위해 각 사업주체들의 집중된 노력과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종합토의를 통해 광산업 육성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김칠규 차관보께서 광산업육성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담당국장을 맡으셨던 만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산업육성위원회는 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총41명의 위원으로 출범하였다.